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강소형 잠재관광지 공모 선정

등록 2023.02.14 16:50:48



[울산=뉴시스] 고래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이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가 주관한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해 관광상품 개발, 컨설팅, 다채널 활용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남구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은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웰리크즈랜드 등과 함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대표하는 관광시설이다.

과거 고래잡이 전성기 시절 장생포 어민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재현한 장생포 옛마을과 5D 입체영상관, 오색수국정원, 고래광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곳에선 매년 수국축제와 여름철 호러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30만명이 찾은 울산고래축제 주무대로도 각광 받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고래문화특구 내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